

제3회 국사들의 대화 가능성 원탁회의 보고서

김경태(고려대학교)

2018년 8월 25일에서 26일, 서울의 더케이호텔에서 「제3회 국사들의 대화 가능성 원탁회의」가 열렸다. 이번의 테마는 「17세기 동아시아의 국제관계 -전란에서 안정으로-」였다. ‘壬辰倭亂’과 ‘丁卯·丙子胡亂’이라는 국제전쟁(전란)과 대규모 전란이 종료되고 각국에서 정상화를 추구하던 시기인 17세기 중엽 이후의 사회·경제적 노력(안정)을 살펴보자는 취지였다. 각국이 뜨겁게 맞붙은 전란과, 상호 간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각자의 방식으로 안정화를 추구한 양상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8월 24일 저녁, 국사들의 대화에 참여하는 분들의 소개가 있었고, 다음날 오전부터 이틀간에 걸친 열띤 회의가 진행되었다. 미타니 히로시 선생(아토미학원 여자대학)의 취지설명에 이어 조광 선생(한국 국사편찬위원회)의 기조강연이 이어졌다. 기조강연에서는 위기를 여러 방안으로 극복하고자 한 조선을 조명하면서, 17세기 위기론의 무비판적인 적용에서 벗어나 동아시아 각국의 실제 양상을 내적·외적 관점에서 함께 살펴본다면 세 나라 역사의 공동 인식에도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하였다.

첫 번째 발표 주제는 ‘壬辰倭亂’이었다. 한국의 최영창 선생(국립진주박물관)은 「한국에서 바라보는 임진왜란」에서 조선시대를 포함한 한국 역사상의 임진왜란 인식의 변화과정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중국의 정 지에서 선생(닝보대학) 「기만인가? 아니면 타협인가? - 임진왜란기의 외교교섭」에서 ‘기만’으로 대변되던 임진왜란기 강화교섭의 일반적 인식에 대해 다시금 비판을 가하면서, 명이 강화교섭에서도 조선의 이해를 위해 노력했음을 강조했다. 아라키 가즈노리 선생(일본 국립역사민속박물관)은 「‘임진전쟁’의 강화 교섭」에서 임진왜란

이후 조선과 에도 막부 간의 국교 교섭에서 쓰시마의 국서위조와 이를 목인한 조선의 논리에 주목했다. 본 주제는 세 나라에서 이미 많은 연구가 축적된 분야이며, 대립점도 비교적 명확하다. 각국 사료에 대한 상호간의 이해도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앞으로 보다 실질적이고 발전적인 논의가 기대되는 바이다.

두 번째 발표 주제는 ‘胡亂’이었다. 허태구 선생(가톨릭대학)은 「禮의 窓으로 다시 바라본 병자호란」에서 조선이 명백한 열세에도 청과 대립(척화론)한 이유를 조선이 가진 사상적 기조에서 찾아내고자 하였다. 스즈키 가이 선생(시가대학)은 「‘호란’ 연구에서 주의할 점」에서 한국의 병자호란 연구에서 ‘정묘화약’과 ‘박난영의 죽음’을 다루는 방식에 대해 소개하면서, 자료의 중층성과 다양성을 이해하기 위한 자료로서 이용할 수 있는 사례라고 하였다. 치메이친 선생(인민대학)은 「라마교와 17세기 동아시아 정국」에서 청조가 정치적 혼란을 수습해가는 과정에서 라마교를 이용하였고, 라마교 역시 이를 이용하여 역사의 주역이 될 수 있었음을 밝혔다. 청조의 중원 지배 과정에서 존재했던 여러 정치체 및 종교체의 실상도 시야에 두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주었다.

본 주제는 임진왜란에 비해 세 나라 사이 공동의 대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분야이다. 사료의 공유와 검토는 물론, 세 나라의 사상적(혹은 종교적) 부분에도 커다란 변동을 가지고 온 사건으로서, 함께 논의할 부분이 많은 연구 분야라고 생각된다.

세 번째 발표 주제는 국제관계의 시각에서 본 17세기의 양상(사회·경제 분야 중심)였다. 마키하라 시게유키 선생(동경대학)은 「일본의 근세화와 토지, 상업, 군사」에서 도요토미 정권 이후 에도 막부까지 경제활동의 근간을 이루었던 수취제도의 변동 양상을 살폈다. 변화의 주요 지점을 명쾌히 지적해주어 비전공자도 이해하기 수월했다. 최주희 선생(한국 국학진흥원)은 「17세기 전반 唐糧의 운영과 국가의 재정부담」에서 임진왜란 당시 명이 지원한

군량을 뜻한 ‘唐糧’이 ‘胡亂’ 전후를 거쳐 조세의 명목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설명해주었다. 자오 이핑 선생(동북사범대학)은 「한중관계의 특징과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연동」에서 ‘동아시아’와 ‘조공체제’라는 개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본 회의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17세기 이후의 한중관계 특성을 소개하면서 해당 개념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함을 제언했다.

정치 아래에서 사회를 움직이는 근원에 대한 관심, 사회·경제에 대해서는 본 주제의 발표자 상호 간은 물론 다른 주제를 담당한 발표자 및 참여자들도 적극적인 관심을 보인 분야였다. 정치만큼이나 각 국의 경제 구조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 역시 추후 ‘국사’들 사이의 활발한 교류가 기대되는 분야임을 확인했다. 연구자 사이의 개인적인 교류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세션별 토론과 종합토론에서는 발표자가 생각하는 역사상에서부터 구체적인 논점까지 다양한 범위의 질의와 응답이 이어졌다. 보다 열렬한 토론을 기대했던 분들이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결코 발표회가 무기력했음을 뜻하지 않는다는 생각이다. ‘국사’ 학자들의 외국사 인식이 축적되면서, 나의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전투적’ 토론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갔음을 증명하는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다른 나라의 다른 양상을 이해하고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재확인하려는 ‘공식 토론’ 외의 개별 토론이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목격했다. 세 나라의 참가자들이 정해진 발표와 토론 시간 외에도 장시간 함께 자유로이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현실에서의 직업과 업무가 산적한 상황에서 더 긴 시간을 함께 하기 어려울 것이나, -세 나라를 제외한 거리가 먼 타 지역에서 회의를 개최한다던가- 온라인을 통한 지속적 대화와 문제의식의 공유라는 방식도 유효할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이어지는 대화를 통해 나의 전문 분야의 독특한 용어나 설명방식을 고집하지 않고 이를 다른 전문분야의 학자에게 어떻게 하면 쉽게 전달할 것인가, 나아가 일반인들도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필자 역시 같은 의무를 지니고 있다.

3회까지의 ‘대화’에 참여하면서 여전히 절감한 것은 언어라는 장벽이 크다는 사실이었다. 세 나라는 대부분 ‘漢字’로 작성된 과거의 사료를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역사적으로도 가까운 거리에서 공통된 역사적 사건을 함께 경험했다. 서로 사용하는 사료로는 소통이 되나 사료에 근거한 나의 견해를 전달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는 ‘통역’이라는 절차를 거쳐야만 했다. 세 나라의 연구자들이 서로의 문제의식을 인식하고 이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직전에 회의의 시간이 다한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다대한 비용과 노력을 들인 이번 회의의 동시통역은 분명 세 나라 국사들의 대화에 큰 도움을 주었다. 충분하지는 않으나 2회에 비해 한걸음, 1회에 비해 두걸음 더 나아갔다는 느낌이 들었다.

대화의 자리를 만들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언어의 장벽을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해준 아쓰미 국제교류재단에 감사드린다. 5회로 예정된 ‘대화’이나, 이후로도 소규모, 그러나 더욱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작으나 깊은 ‘대화의 장’이 수시로 마련되기를 기대한다.